



최경주가 25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베이힐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16번홀서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도... 신지애도... 무난한 출발

경주, 인비테이셔널서 공동 22위... 우즈는 1오버파 31위

PGA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 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첫 라운드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즈는 25일(한국시간) 올 코스를 다룬없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파72-732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이 골프장에서 여섯 차례나 우승했던 우즈는 강풍 때문에 고전한 끝에 단독 선두인 스펜서 레빈(미국·6언더파 66타)에 7타 뒤진 공동 31위로 떨어졌다.

과 개리 우들랜드(이상 미국)는 나란히 5오버파 77타를 쳐 공동 87위에 그쳤다. 보기 없이 6타를 줄이며 선두로 나선 레빈은 PGA 투어에서 우승한 적이 없어 이번 시즌에 무명 선수로서 또 한 번의 돌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인 리키 파울러와 한터 메이헌(이상 미국)이 3타 뒤진 공동 2위(3언더파

69타)로 추격 중이다. 필 미켈슨(미국)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위에 포진했다. 작년 US오픈 챔피언인 그레이엄 맥도웰(북아일랜드)은 8오버파 80타를 쳐 공동 107위로 떨어지는 망신을 당했다. 한편, 최경주(41·SK텔레콤)는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아 공동 22위(이븐파 72타)로 1라운드를 마쳤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공동 32위(1오버파 73타),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공동 46위(2오버파 74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자애, KIA 클래식 3언더파... 김인경 등과 공동 4위

LPGA 신지애(23·미래에셋)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총상금 170만 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신지애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장(파73·6700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김인경(23·하나금융), 미야자토 미카(일본) 등과 함께 공동 4위에 오른 신지애는 단독 1위로 나선 아만다 블루먼허스트(미국)에 4타 뒤졌다. 블루먼허스트는 버디 9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2개로 막아 7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신지애는 전반 9홀에서 보기

만 2개가 나와 시작이 좋지 못했지만 후반 9홀에서 버디만 5개를 뽑아내 타수를 줄였다. 올해 LPGA 투어 대회에 세 차례 출전한 신지애는 2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 공동 11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다. 재미교포 위성미(22·나이키골프)도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8타를 기록, 단독 3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한국 선수 가운데는 재인 박(24), 박민비(23·펜 코리아), 유선영(25·한국인삼공사), 김효룡(27)이 청야나(대만) 등과 함께 2언더파 71타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서희경(25·하이츠)은 4오버파 77타의 부진한 성적으로 하위권으로 밀렸다. /연합뉴스



김연아 어떡하나

3월21일 도쿄 개최가 무산된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가 4월24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의 행보도 한층 바빠지게 됐다. 모스크바 대회 기간을 전후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대사 스케줄과 아이스쇼 일정을 잇달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입국한 김연아는 우선 4월 3~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스포트 어코드 행사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어 5월 6~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아이스쇼를 열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긴 모스크바 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김연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연아가 스포츠 어코드와 아이스쇼 사이에 끼여든 모스크바 대회까지 치르려 된다면 그

피겨 선수권 내달 모스크바 개최 확정
평창 지원·아이스쇼 일정 조정 불가피

야말로 숨 쉴 틈 없는 강행군을 펼쳐야 한다. 김연아로서는 모스크바 대회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경기에서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대회 전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컨디션을 가다듬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토리노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1년 만에 복귀전을 화려하게 치르려던 김연아의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연아는 지난 20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수는 3월 들어 일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평창 알렌시아 스키점프장을 방문하느냐 훈련을 거른 김연아는 주말인 26일과 27일에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중국상대 '진주찾기'

내일 울산서... 신안 출신 김귀현 중책 맡을 듯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27일 중국과의 평가전을 통해 오는 6월 시작되는 2012 런던올림픽 지역예선에 대비한 마무리 점검에 나선다. 올림픽 대표팀은 27일 오후 8시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올해 첫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와의 친선경기 이후 8개월 만의 평가전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올림픽 대표팀 간 맞대결에서 무패 행진을 달렸다. 1992년 1월30일 말레이시아에서 치러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전(3-1 승) 이후 모두 8번 맞붙어 7승1무의 성적을 거뒀다. 올림픽 대표팀은 20년간 이어온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6월부터 시작되는 올림픽 지역예선에서 언제든지 중국과 맞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평가전이지만 미리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전은 '홍명보호'의 런던 올림픽 순환 여부를 내다볼 수 있는 시험 무대다. 홍 감독은 김보경(세레소 오사카)과 조영철(니가타)·지동원(전남) 등 핵심 멤버가 A대표팀에 차출돼 빠져 지만, 11명의 K리그와 6명의 해외파를 앞세워 중국을 꺾고 자신감을 얻겠다는 복안이다. 최진방 공격의 중책은 '홍명보 키즈' 이성렬(서울)과 김동섭(광주)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큰 키를 자랑하는 석현준은 오랫동안 경기를 뛰지 않은 탓에 후반 조커로 나설 전망이다. 홍 감독이 비디오 동영상을 보고 뽑았다는 김귀현(벨레스 사르스필드)과 이용재(남트), 김지웅(전북) 등은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푸는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강행군 호랑이들 강풍에 '깜짝 휴식'

시범경기 두산전 취소... 한낱 '퇴근명령' 선수들 웃음꽃

“가라고는 하는데...” 25일 무등야구장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범경기가 강풍으로 취소됐다. 경기가 취소된 후 KIA 덕아웃에는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다. 간밤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이날 광주 날씨는 화창했다. 훈련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흡수 모를 부상에 대한 염려로 경기 시작 30여분 전 취소가 결정됐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 선수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왕좌왕했다. ‘퇴근명령’까지 떨어지자 선수단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선수들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정말 가도 되냐?’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결국 프런트들이 줍다시피 된들을 때밀어 선수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선수들의 이런 반응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훈련량을 소화했다. 스프링캠프에서는 물론 귀국후에도 특타와 야간훈련까지 소화하면서 강행군을 이어왔다. 원정일정이 계속되면서 휴식일도 없었다시피 지내왔다. 이날도 선수들은 경기가 취소되자

오후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텃밭의 해산명령에 선수들이 당황을 했던 이유다. 몇 차례나 ‘가도 되는 거냐?’며 질문을 하던 선수들은 밤날 햇살보다 따뜻한 미소를 띤 채 경기장을 떠났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조기 귀가를 한 것은 아니었다. 특타조에 편성됐던 이용규·이중범·이병호는 1시간여 가량 훈련을 진행한 뒤에 집으로 향했다. 주장 김상훈과 최희섭도 이들과 함께 방망이를 들린 뒤에 짐을 싸들고 숙소로 향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오늘 유스퀘어서 팬사인회

광주 FC가 팬사인회를 열고 시민들과 만남을 갖는다. 광주는 26일 오후 2시 광주 유스퀘어 일대에서 팬사인회 등 이벤트를 연다. 팬들과의 만남을 갖는 광주는 이날 시즌권 판매와 오는 4월2일 포항과의 홈경기 홍보에도 나선다. 또 치어리더·비비이 공연, 마스크트 거리홍보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며 추첨을 통해 짜인 볼, 티셔츠 등 MD상품도 증정한다. 광주FC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구단에 보내 준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팬사인회를 마련했다”며 “축구팬들과 신인선수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전문기자가 쓴 스카우팅리포트

현직 스포츠신문 야구 전문기자들이 집필한 2011 프로야구 스카우팅리포트가 발간됐다. (주)스포츠미디어가 발간한 이 책에는 올 시즌 KBO 소속 484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휴대하기 편하도록 포켓 사이즈로 제작됐다. 투수들의 피칭종과 타자들의 타구 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픽도 프로야구 사상 처음 시도됐다. 투수의 경우 스트라이크존 9개, 볼존 8개 등 총 17개 구간으로 나눈 뒤 5가지 색으로 투구빈도를 표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할 게시판
화축
▲홍준경·장신숙씨 장남 정표군 김옥(고운종합건설 부사장)·김매순씨 차녀 정민양=26일(토) 오전 11시40분 웨딩장당 금호30층(아도니스홀)
▲김형봉·박소연씨 장남 경석군 송숙희씨 차녀 박선영양=27일(일) 오전 11시 꿈의 궁전 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이용선(국회의원)·신영옥씨 장남 현철군 성기섭·김정희씨 차녀 미소양=27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GS타워(옛 LG남타워) 1층(아모리스홀)
▲배형식·임순희씨 장남 상현(LG전자)군 박춘심씨 차녀 김지

생명계시판
화축
▲홍준경·장신숙씨 장남 정표군 김옥(고운종합건설 부사장)·김매순씨 차녀 정민양=26일(토) 오전 11시40분 웨딩장당 금호30층(아도니스홀)
▲김형봉·박소연씨 장남 경석군 송숙희씨 차녀 박선영양=27일(일) 오전 11시 꿈의 궁전 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이용선(국회의원)·신영옥씨 장남 현철군 성기섭·김정희씨 차녀 미소양=27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GS타워(옛 LG남타워) 1층(아모리스홀)
▲배형식·임순희씨 장남 상현(LG전자)군 박춘심씨 차녀 김지